

자연기득 유기농 먹거리를 전하는 영암유기영농조합 고효숙 대표

봄 햇살 가득한 오후, 한기득 책을 놓은 배낭을 짊어진 여대생의 모습인 고효숙 영암유기영농조합법인 대표(영암군 신북면 행정리 소재)를 목포대 교정에서 만났다.

오로지 '건강한 먹거리' 를 생각해 귀농

나주출신인 고효숙 대표(이하 고 대표)는 직업군인인 남편과 함께 젊은시절 서울에서 생활했다.

요리사이기도 했던 그는 서울에서 사먹었던 농산물들이 농약냄새 때문에 고유한 향을 느끼기 어려웠고 본인 몸에서 이상반응을 하는 등 먹거리에 대한 오염이 충격적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건강한 먹거리를 생각하게 되었고, 직접 농사를 해야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한 게 귀농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지금도 먹거리에 신비와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고 대표는 직접 제조한 토비를 쓰며 맨땅에 직접 나무 하나하나를 심고 집을 지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30여년간 유기농업을 실천하고 있다.

감, 꾸지뽕, 산야초, 쌀 등을 재배하고 있다는 고 대표는 연고지가 아닌 영암으로 귀농한 이유를 오로지 자신이 좋아하는 '감' 에 있었다고 한다. 감이 잘 자랄 수 있는 연평균온도 13도인 재배 적지를 찾다보니 영암지역이 적지였고 그 인연으로 영암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영암유기영농조합 외부>

소비자와의 직거래 확대를 위해 영농조합법인 설립



농산물 생산은 안정이 되었지만 유통이 어려운 현실에 도농교류차원으로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생각하게 되었다.

도시민이 체험하러 오면 유기농 농가들이 참여하여 체험프로그램을 돕고 자신의 생산품을 직거래로 판매할 수 있게하자 라는 차원에서 2005년에 영농조합법인으로 창업을 하게 되어 유기농산물을 비롯하여 유기가공식품, 유기발효음료를 생산하고 있다.

우프(WWOOF), 농가 인력난을 해소하고 한국 농업문화를 알리다

영암유기영농조합은 우프(Willing Workers On Organic Farms)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프란 세계 젊은이들이 넓은 세상의 체험을 목적으로 유기농장에서 일손을 도와주며 숙식을 제공받는 일종의 '팜스테이' 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력난이 심해졌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조금이나마 인력난을 해소하고 있다.

1년에 10회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고대표의 농장은 1회당 2주 내외의 기간으로 유럽, 미국 등에서 젊은이들이 방문하고 있으며 이들은 하루 약6시간 정도를 농가의 일손을 돕고 있다.

하나의 경영체로서의 농업, 가치인정하는 문화 형성되길

영암유기영농조합의 상품은 1000원짜리 은행환, 구운소금, 60ml짜리 감식초, 백야초 등 다른곳과 다르게 소포장 제품이 있다.

제품의 가치를 따지자면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소비자들 상품 접해볼 수 있도록 수단으로서 만들었다고 한다.

이런 제품들은 홈페이지(www.gamnara.net)와 남도발상, 오피 등의 사이트, 체험객 직거래, 그리고 입소문으로 판매하고 있다.



가공식품 및 발효음료를 만들기 이전에 건강한 원료를 만드는데 걸린 20년이란 기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고 대표는 농업은 단순한 농사가 아닌 하나의 경영체로 그 가치를 인정해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끝까지 하고 싶은 마음에 공부에 매진

식품공학을 공부하고 있는 고효숙 대표(이하 고 대표)는 주3일은 오전 7시에 집을 나서 오후7에나 집에 돌아온다고 한다.

늦게나마 공부를 시작했던 이유를 물으니 식품이 잘못되었을 때 이유나 대처방법, 식품의 성질이 궁금하기도 하고, 식품에 대한 이론을 견비해야 좋아하는 일을 끝까지 하겠구나 하는 생각에 늦깎이 대학생에 도전했다고 한다.

가치관과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도전했으면

최근 귀농과 함께 농가창업을 하시는 분에게 고 대표는 본인의 가치관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돈을 벌려고 농촌에 온다고 하면 도시로 가야하지만, 만약 돈이 아닌 자신만의 가치관이 있다고 하면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본인이 즐기고 살 수 있도록 시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생애 마지막 시점까지 농사를 짓고 싶다는 고효숙 대표, 유기농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끝없는 발전의 길을 걷고 있는 그에게 박수를 보낸다.

영암유기농조합법인 주요연혁

- 1977.06 유기농원 개설
- 1990.02 유기농업 실천
- 1998.02 고효숙 단감 상표등록(특허청)
- 2005.11 영암유기농조합법인 설립
- 2006.02 유기농산물 인증
- 2007.08 유기가공식품 인증
- 2010.02 유기가공공장 시설 증축
- 2012.08 유기농명인 지정(전라남도)